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MY NAME IS ANNA

가제 : 내 이름은 애나

저자 : Lizzy Barber

출판사: Century

발행일: 2019년 1월 10일

분량 : 400 페이지

장르 : 스릴러소설



★ 「데일리메일」 제 2회 범죄소설 컨테스트 우승작 - 1,000여 편의 후보 중 선정

플로리다에서 나고 자라 열여덟 살 생일을 맞이한 소녀가 남자친구와 함께 난생 처음 놀이동산에 놀러 간다. 특별한 종교를 믿고 교회와 목사님이 정한 생활 방식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지키는 엄마와 단둘이 사는 동안, 놀이 동산은 ‘죄악으로 물든’ 곳으로 여겨졌다. 남들은 가족들과 함께 일년에도 몇 번씩 가는 그곳에, 엄마에게 태어나 처음 거짓말까지 해가며 도착한 소녀 애나는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힌다. 이유도 모르고 수시로 꾸던 악몽, 누군가 자신을 애타게 찾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그 꿈의 배경이 바로 그 놀이공원이었다는 사실을 마침내 깨달은 순간, 애나의 머릿속에 낯선 확신이 고개를 든다. 애나는 화려한 볼거리와 형형색색으로 칠해진 놀이기구가 가득한 이곳, 아스트로랜드에 분명히 와 본 적이 있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들에게 엄마, 아빠라고 부르면서 분명 이곳에서 신나게 놀았던 기억이 떠올랐다.

저 멀리 영국 런던에서는 한 가족이 전국에 방송될 인터뷰를 준비한다. 클래식 음악 프로듀서로 크게 성공한 아빠와 가정주부인 엄마, 어린 남동생 롬과 함께 방송국에 도착한 로지는 직원으로부터 ‘에밀리의 여동생’이라고 적힌 명찰을 건네 받는다. 로지가 겨우 한 살 때 가족들 모두 미국에 여행을 갔다가 언니 에밀리가 실종된 지 벌써 15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시체도 발견되지 않고 제대로 된 단서 하나 찾지 못한 미스터리한 에밀리 실종 사건은 영국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지만 각 분야의 저명한 범죄 전문가들이 모두 나서도 여태 실마리 하나 찾지 못했다. 어떻게든 에밀리를 찾고 말겠다며 설립된 재단이 자금 위기로 곧 폐쇄될 위기에 처하자 타개책으로 다시 한 번 방송 인터뷰를 해서 기부금을 모으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재단이 폐쇄되면 이제 에밀리를 찾는 노력도 모두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로지의 가족에게는 이번 인터뷰가 굉장히 중요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놀이동산에서 잃어버린 기억을 떠올린 애나처럼 로지 역시 이 인터

뷰를 마친 후 경찰도, 엄마아빠도 전혀 알지 못하는 유일한 단서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왜 그는 잊을 만하면 전국 방송에 나올 만큼 국민 전체가 알고 있는 에일리에 관한 단서를 갖고도 입을 꼭 다물고만 있었을까? 로지는 직접 그를 만나 의문을 풀기로 결심한다.

마이크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은 현재 시골 자그마한 마을에서 리포터로 일하고 있지만 원래 탐사보도 전문 기자였다. 그를 만나러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간 로지는 아무 것도 모른다면 자신을 내치는 마이크를 붙들고 지금 재단이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전하며 도와달라고 호소한다. 그제야 마이크의 입에서 힘들게 나온 진실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듣고도 믿을 수 없는 사이비 종교 집단, ‘백합들’과 이 집단을 만든 폴 목사가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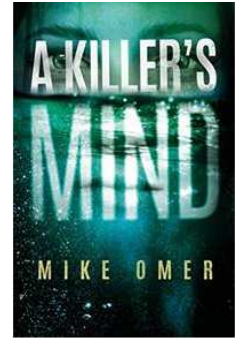
마이크는 첫 번째 부인의 가족들을 통해 ‘백합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장인이 암에 걸려 어려운 형편에 투병을 시작하자 장모가 백방으로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을 찾다가 이 종교를 발견한 것이다. 금욕주의, 먼지 한 톨도 용납하지 않는 청결, 그리고 명확한 상하관계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져야 하는 명령과 질서를 주된 가치관으로 내세운 이 종교에 마이크의 장모는 금세 빠져들었다. 그리고 암에 걸린 남편과, 마이크의 아이를 임신한 자기 딸에게도 신빙성 없는 ‘백합들’의 믿음을 강조하기만 했다. 그 믿음 때문에 결국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장인이 돌아가신 후, 마이크는 아내와 이혼했다. 고향인 영국에 돌아온 그는 로지의 언니, 에일리의 실종 사건을 접하고 기자로서 본능적으로 강한 호기심을 느낀다. 에일리를 놀이동산에서 안아 올려 사라진 용의자의 영상은 화질이 너무 흐려서 도저히 알아볼 수 없었지만, 마이크는 여자로 보이는 납치범 목에 ‘백합들’의 상징물인 목걸이가 걸려 있다는 사실을 알아챈다. 이혼하기 전, 장모의 목에 한 번도 걸려 있지 않은 적이 없었던 특이한 모양의 바로 그 목걸이었다. 마이크가 알기론 ‘백합들의 본거지는 다른 곳인데, 왜 플로리다에 그것도 놀이 동산에 와서 납치할 어린 아이를 잡아갔을까? ‘백합들’의 창시자 리지 바버는 대체 언더 사람일까?

지금까지 애나가 이름인 줄 알고 애나로 살아온 에일리도 전혀 알 수 없었던 엄마의 존재를 처음으로 알게 된다. 자신을 키워준 엄마는 ‘백합들’이라는 독특한 집단의 독실한 신도였고, 애나는 매일, 매 순간 엄마의 철저한 감시를 받는 기분으로 살아간다. 손발톱에 매니큐어 칠하는 것부터 애나의 또래 친구들이 당연히 즐기는 거의 모든 일들을 ‘순수함을 더럽히는 행위’라며 절대 못하게 하는 엄마인데, 목사의 아들이라 겨우 만남을 허락한 윌리엄과 단둘이 놀이동산을 간다는 사실을 절대 그대로 말할 수 없었다. 애나가 엄마로 알고 살아온 이 여성은 대체 누구일까? 광신도 집단에서 어린아이를 납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과 영국, 두 대륙에서 서서히 과거 납치 사건이 벌어진 시점으로 시간을 되돌리기 시작한 두 자매의 노력이 각 장에서 번갈아가며 생생하게 묘사된 흡입력 강하고 재미 있는 스릴러 소설이다.

<저자 소개>

리지 바버(Lizzy Barber)는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영어를 공부하고 레스토랑 그룹에서 브랜드와 마케팅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 일하고 있다. 위 소설이 데뷔작이다.

제목 : A KILLER'S MIND
가제 : 살인자의 생각
저자 : Mike Omer
출판사: Thomas & Mercer
발행일: 2018년 8월 1일
분량 : 370 페이지
장르 : 범죄소설



★ 「워싱턴 포스트」 베스트셀러

★ 아마존 독자 별 5개 평점후기 200건 이상 등록

시카고에서 여성들이 소름 끼치는 모습으로 죽은 채 발견된다. 언뜻 보서는 시체가 아닌 것처럼, 시내 어딘가에 놓여 있지만 자세히 보면 살해된 지 며칠이나 지난 것으로 밝혀지는 기괴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것이다. 지역 경찰의 추적에 만족하지 못한 수사 당국은 범죄 심리학 전문가, 조 벤들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어린 시절, 가족들과 함께 살던 마을에서 의문의 연쇄살인이 발생했을 때부터 본능적으로 살인, 그리고 심리 상태가 비정상적인 범주자에 관한 축이 남달랐던 조는 서둘러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끔 프로파일링에 나선다. 그러나 FBI 행동분석과에 특수요원으로 새로 발령 받은 파트너, 테이텀 그레이와의 협력은 처음부터 삐걱댄다. 조는 한번 잡아야 할 표적을 정하면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는 타고난 사냥꾼인 반면, 테이텀은 조직의 규칙 따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이 생각한 방식대로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는 타입이다. 여러 모로 부딪히는 두 사람은 병적인 성적 환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여성들을 잡아 들이는 연쇄 살인마의 머릿속을 파헤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살해 수법보다 더 괴상한 범인의 환상과 함께 다 끝난 일로 묻어둔 조 벤들리의 과거 사건들이 갑자기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예상치 못한 전개로 치달는 스릴 넘치는 이야기가 펼쳐진다.

두 사람이 쫓는 살인자는 자신이 획득한 사냥감을 최대한 온전히, 살아 있는 사람처럼 죽여야 한다는 극도의 결벽증을 드러낸다. 발견된 시체는 전문가의 솜씨로 꼼꼼하게 방부처리가 되어 있는데, 몸이 뻣뻣해지지 않도록 특수한 처리를 별도로 한 흔적도 발견된다. 여성의 목 부위에 남아 있는 목 졸린 흔적 외에는 전신에 상처 하나 없다. 잡혀온 여성들이 미친 듯이 발버둥칠 때, 조용히 시키려고 주먹을 짹 쥐다가도 뽀얀 피부에 멍이 들까 봐 겨우 감정을 억누르는 범인의 노력이 남긴 결과였다. 조가 수사를 시작한 시점에 발견된 시체는 총 세 구. 최근에 발견된 시체일 수록 몸에 남아 있는 상처나 흔적이 더 적다는 점도 살인자가 이런 부분에 집착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마치 결혼한 사람들이 반지를 나눠 끼듯, 여성의 목에 자신이 고안한 목걸이처럼 생긴 끈으로 숨이 끊어질 때까지 조여서 마지막으로 남은 흔적을 영원한 사랑의 표식이라고 굳게 믿는 정신 나간 이 살인자의 머릿속에는 과연 어떤 환상이 심어져 있을까? 무고한 희생자를 줄이려면, 일반인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환상부터 알아내야 한다.

한편, 조는 어린 시절 경험한 살인의 공포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이제 서른세 살, 그 일이 벌어진 건 아주 먼 과거의 일이 되었지만 징그러운 살인자의 음성이 아직 생생하게 남아 거의 매일 악몽에 시달린다. 범죄 심리학자라는 직업의 특성상 자신과 같은 고통에 시달리는 수많은 피해자들을 보면서, 조는 고통스러운 과거를 겪지 않은 사람들이 쉽사리 생각하는 것과 달리 그런 기억은 마음 속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결코 완전히 뽑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거꾸로 적용하면 비정상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역시 바로 그런 기억에 무참히 휘둘려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벌인다는 것을 알기에, 바로 그 숨겨진, 아주 내밀한 심적 고통의 기억과 뿌리를 찾아 범죄의 윤곽을 드러내는 것이 조가 지금까지 해온 일이었다. 어쩌면 과거의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기에 생겼을지 모를 이 특별한 통찰력 덕분에 FBI 자문으로도 일할 수 있게 된 조는 부서장 크리스틴의 요청으로 시체를 방부 처리하는 연쇄 살인자의 마음을 분석하기 시작한다. 파트너로 지명된 사람은 로스앤젤리스에서 미국 전체를 발각 뒤집어놓은 소아성범죄 사건을 시원하게 해결한 형사로 이름을 날린 테이텀 그레이였다. 일년 넘게 범인이 잡히지 않아 온 국민을 애타게 만든 변태 범죄자를 잡아들인 유명한 성과와 달리, 수사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테이텀이 공식적으로는 ‘승진’해서 크리스틴의 행동분석과로 발령 받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 문제를 밝히기 위한 내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결론이 날 때까지 테이텀을 다른 곳에 보내 놓는 것이 목적인다는 사실도 크리스틴 정도만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미 첫 만남부터 상관에게 썩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던 테이텀은 까다롭고 예민한 조 벤틀리라는 FBI 자문과도 시작부터 부딪힌다. 그러나 여성을 죽인 다음 강간하고 방부제에 담그는 수법으로 수사팀 전체를 경악하게 만든 살인자를 함께 쫓으면서 두 사람은 의외로 손발이 잘 맞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얼마 전부터 조 앞으로 배달되어 온 이상한 우편물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테이텀의 도움은 더욱 빛을 발한다.

봉투조차 뜯지 못하고 조가 서랍 안에 쑤셔 넣어놓기만 한 의문의 서류봉투 속에서는 오래 전 다 끝난 사건으로 믿고 싶었던 살인사건과 관련된 자료가 담겨 있다. 대체 누가 조에게 이런 우편물을 보냈을까? 범인을 쫓는 사냥꾼에서 또 다시 살인마가 찾는 사냥감이 되어버린 조는 이번에는 정말로 끈질긴 과거의 악몽을 끌어내고 말리라 굳게 다짐한다. 스토리의 큰 줄기가 되는 여러 잔혹한 사건들이 교묘한 연결고리로 한데 엮여 혼란스럽거나 복잡하지 않게 계속해서 호기심을 증폭시키는 전개가 돋보이고 섬뜩한 범죄들 사이사이에 조와 테이텀이 가미하는 코믹한 갈등이 양념처럼 잘 배합된 범죄 스릴러 소설이다.

<저자 소개>

마이크 오머(Mike Omer)는 기자, 게임 개발자, 게임업체 CEO로 일하다가 현재는 스릴러 소설을 주로 쓰는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제목 : MIND GAMES

가제 : 마인드 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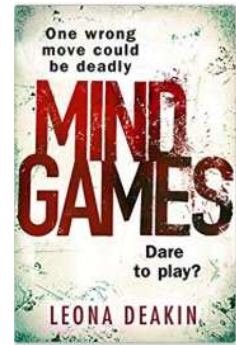
저자 : Leona Deakin

출판사: Black Swan

발행일: 2019년 3월 7일

분량 : 384 페이지

장르 : 스릴러



★ 독일, 스페인, 체코, 러시아, 터키 판권 계약 체결

학교 체육관에서 교사 한 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다. 사망 원인은 목 경동맥을 정확히 관통한 연필이고, 그 연필을 손에 쥐고 찌른 사람은 세라핀이라는 열네 살 학생이다. 함께 있던 친구 클라우디아가 수개월 전부터 다렌 선생님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세라핀은 사건 당일, 클라우디아와 체육관에 들어가자 다렌 선생이 뒤따라왔고 자신까지 구석에 몰고 가 덮치려고 하는 통에 주머니에 있던 연필을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살짝 굵을 생각이었고, 그 틈에 친구와 도망가려고 했을 뿐 그 자리에서 선생님이 죽을 거라곤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외동딸인 세라핀이 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말 못할 고통에 시달릴 수도 있다고 생각한 부모는 심리학자 오거스타 블룸에게 딸을 데려간다. 주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범죄 피해자들을 상담하고 사립탐정으로도 활동해온 블룸은 한 시간 가량 이어진 첫 상담에서 세라핀에게 묘한 느낌을 받는다. 그런데 상담을 마친 직후, 함께 탐정 사무소를 운영하는 동료 마커스 크림슨이 골치 아픈 사건을 말자고 제안한다. 딸 친구인 제인이 엄마가 일주일째 행방불명인데 경찰에서 손 놓고 아무 것도 안 한다며 찾아왔다는 것이다. 열다섯 살인 제인은 제법 영리한 아이라, 엄마가 잠깐 바람이라도 쐬러 간 것쯤으로 여기는 경찰 대신 이미 혼자 여러 가지를 조사해 보았고 뭔가 수상하다는 생각에 탐정인 크림슨을 찾아온 것이다. 돈을 크게 따지는 건 아니지만 다른 사건들도 쌓여 있는데 수고비도 한 푼 받지 못할 일까지 떠맡기 싫어서 주춧했던 블룸은 제인이 모아온 자료를 보고 강한 호기심을 느낀다. 제인의 엄마까지 총 다섯 명이 비슷한 정황에서 실종됐다. 나이도, 성별도, 사는 곳도, 직업도 다른 이 사람들은 모두 생일날 새하얀 봉투에 담긴 편지를 받았고 그 직후 연기처럼 사라진 것이다.

편지 봉투에는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수신자의 이름이 적혀 있어서 무작위로 대상을 노렸다고는 절대로 생각할 수 없었다. 봉투 안에는 고급스러운 은색 글씨체로 희한한 내용이 적혀 있다. ‘선물로 게임을 준비했어. 감히 도전해 볼 텐가?’ 제인은 경찰에게도 이 편지를 보여주었지만 경찰은 어른들은 가끔 요상한 게임을 즐기기도 하며, 이 편지를 받고 엄마가 게임에 참가하기로 했다면 본인 의지로 그런 것이니 다 끝나고 오기를 기다려야지, 경찰 인력을 동원해서 실종 수사를 벌일 수는 없다고 딱 잘라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제인이 알아본 대로, 곳곳에서 같은 편지를 받은 후 임신한 아내를 내버려두고 혼자 사라진 남편을 비롯해 다른 실종자들의 정황을 보면, 그저 웃어넘길 게임이 아닌 건 분명했다.

세라핀은 거듭되는 경찰 조사와 부모님의 권유대로 시작한 심리 상담이 거추장스럽기만 하다. 거울 보면서 표정과 할 말을 연습하고 학교에서 본 멍청한 친구들이 평소에 하는 대로 순진무구한 얼굴로 ‘아무 것도 몰라요, 전 무서워요’ 같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경찰은 ‘다렌 선생님을 처음부터 죽일 생각을 한 건 아니냐’고 물었다. 사실 세라핀은 제도용 연필을 세상 그 누구보다 뽀족하게 깎을 줄 아는 미술 선생님의 실력을 눈 여겨 봐두었고, 문제의 사건이 벌어진 날 미술 시간에 그렇게 깎인 연필 한 자루를 몰래 주머니에 챙겨서 나왔다. 다렌 선생님을 찌를 때 곁에 있었던 클라우디아와 그렇게 절친한 사이도 아니었다. 그리고 경찰이 의심하는 대로 경동맥이 어디에 있고 그곳을 찌르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도 훤히 알고 있었다. 연필을 단단히 쥐고 한 번에 정확히 찌르는데 온 힘을 집중했고, 그대로 쓰러진 선생님의 목에서 피가 철철 흘러 나올 때도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얼마나 정확히 찔렀는지 확인해보고 싶었으니까. 주저 앉아 평평 울어대는 클라우디아와 비명 소리를 듣고 체육관에 들어온 교장 선생님 때문에 그러고 싶은 걸 겨우 참았을 뿐이다. 엄마가 철썩 같이 믿는 대로 그저 연약한 여학생의 정당방위로 잘 끝내고 싶은데, 경찰은 자꾸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부모님이 고용한 불륜 박사라는 심리학자도 영 자신의 말을 안 믿는 눈치라 세라핀은 점점 초조해진다. 이러다 자칫 잘못하면, 왜 이 살인이 시작됐는지 다 들킬지도 모른다.

제인의 엄마 라나는 군인이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후, 많은 군인들이 겪은 것처럼 라나도 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렸다. 하루 종일 술에 취해 있고 사람들과 거의 만나지도 않은 채 하나뿐인 딸아이도 잘 챙겨주지 못했다. 하지만 죄책감보다는 청소년기에 마약과 소소한 범죄를 일삼으며 방황했던 자신과는 전혀 다르게 반듯한 모범생으로 사는 딸 제인이 ‘참 지루하게 산다’고 생각하곤 했다. 그래서였을까? 생일날 아침, 누가 보냈는지 알 수 없는 하얀색 봉투에 담긴 글에 라나는 즉각 반응했다. ‘감히 도전해 볼 텐가?’ 무슨 게임인지는 모르지만 그럴 배짱이 있냐고 살살 굼는 문구에 조금도 망설임 없이 응한 것이다. 편지에는 URL이 적혀 있었고, 라나는 곧바로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그 주소에 접속했다. 그러자 편지와 똑같이 가느다란 은색 글씨로 ‘어서 와요 라나’라는 문구가 떴고, 라나는 주저 없이 ‘게임 시작’ 버튼을 눌렀다. 그 순간적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

심리학자이자 사립탐정인 불륜은 잔인하게 교사를 살해한 한 소녀와, 딸을 혼자 두고 통장에 남은 돈을 모두 털어서 사라진 엄마, 마찬가지로 수상하게 종적을 감춘 사람들이 모두 하나로 엮여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이들을 마리오네트처럼 뒤에서 조종하는 존재를 쫓기 시작한다. 아무 연관이 없어 보였던 실종자들의 평소 행동과 성격, 특징을 파고들자 드러난 놀라운 공통점이 범인이 이들을 자신의 수족으로 선택한 이유였음을 깨달은 불륜은 살인을 가벼운 장난 혹은 게임으로 여기는 범인을 추적하지만, 자신도 범인의 교묘한 계획에 놀아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을 떨치기 힘들다. 치열한 두뇌 싸움이 더욱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흡입력 강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레오나 디킨(Leona Deakin)은 웨스트 요크셔 경찰 소속 심리학자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현재는 리즈에 살면서 작업 심리학자로 일하고 있다.

제목 : THE MONSTERS WE DESERVE

가제 : 우리가 자초한 괴물

저자 : Marcus Sedgwick

출판사: Zephyr

발행일: 2018년 9월 6일

분량 : 240 페이지

장르 : SF,호러



★ 올해로 출간 200주년을 맞이한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을 재평가하고 창의적으로 재해석한 참신한 이야기

오랜 역사를 거쳐 인간이 만들어낸 괴물은 무수히 많고 다채롭다. 전 세계 모든 문화권에 시대를 불문하고 괴물이라는 존재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했다는 사실은 현재까지 전해지는 수많은 창작물을 통해 여실히 알 수 있다. 베오울프에 등장하는 짐승 같은 거인 괴물 그렌델이나 젊음을 얻기 위해 처녀들을 죽이고 그 피로 목욕을 한 ‘피의 백작부인’ 엘리자베스 바토리, 루마니아의 용맹한 군인이지만 그 유명한 ‘드라큘라’의 실존 모델로 알려진 블라드 체페슈, 지킬 박사가 만든 하이드, 그리고 200년 전 좀처럼 알아지지 않는 날씨 때문에 알프스 산중에 갇힌 여류작가의 손에서 탄생한 프랑켄슈타인까지, 탄생 과정과 등장 이후에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들, 결말도 모두 다른 이 괴물들의 이야기는 인간의 상상으로 탄생하여 많은 이들을 매혹해 왔다. 그런데 기발한 상상력의 산물인 이 괴물들은 과연 종이로 된 책 속에만 얽매어 머물러 있을까? 책장 밖으로, 살아 숨쉬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세상에는 절대로 발을 들이지 않을까? 작가를 비롯한 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한 사이에 당연히 분리되어 있다고 여기는 가상의 세계와 현실의 경계를 깨고 괴물이 우리가 사는 곳으로 넘어 온다면?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통제한다면?

이 섬뜩하지만 호기심을 자아내는 질문이 이 소설의 중심 주제다. 이름도 ‘MS’로만 명시된 이 소설의 주인공은 작가로 오랫동안 활동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글이 막혀 단 한 자도 쓸 수 없는 극심한 아이디어 고갈 상태에 이르자 새로운 전환점을 찾기 위해 알프스로 향한다. 아름다움과 고요함, 이 두 가지 가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곳으로 그가 떠올린 곳은 울창한 나무가 우거진 산 한가운데 여름철에만 양이나 염소를 먹이려고 올라온 목동들이 잠시 머물다 가는, 집과 헛간의 중간쯤 되는 소박한 쉼터였다. 영국에서 이런 곳을 찾아 날아온 그는 기적적으로 딱 머릿속으로 그리던 그런 집을 소개 받아 10월 초, 겨울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집에 돌아가리라는 굳은 결심과 함께 짐을 푼다. 하나뿐인 발전기로만 겨우 전등을 켤 수 있는 전기가 만들어지는데 그마저도 수시로 고장 나기 일쑤고, 차를 타려면 15분은 족히 걸어가야 하고 시내에 나가지 않으면 대화를 나눌 상대가 한 명도 없는 산중에 홀로 틀어박힌 이 소설 속 작가는 맑은 공기와 극도의 고립감이 번득이는 아이디어를 촉발시켜주기를 기대하지만, 분명 도착할 때만 해도 더웠던 공기에 겨울 냄새가 나기 시작할 때까지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한다. 속상하고 답답해서 속을 끓이던 어느 날, 그는 가장 원치 않았

던 곳에서 마침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다. 그가 싫어하다 못해 혐오하고 강한 거부감까지 느끼는 메리 셸리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프랑켄슈타인』에서 좀처럼 불이 붙지 않았던 영감을 얻은 것이다. 내내 하얀 백지로만 남아 있던 종이는 오랜만에 타오른 창작 욕구로 어느새 꽉 채워지지만 동시에 이상한 일들이 눈 앞에서 벌어지기 시작한다. 꿈이라도 꾸는 것처럼 가만히 있던 물건들이 혼자서 움직이고, 처음 보는 열쇠가 나타나 작가를 그 전까지 존재하는 줄도 몰랐던 방으로 인도하고, 주변에 인적이 완전히 끊긴 곳인데 누군가 손으로 직접 쓴 메모가 나타난다. 외딴 산속에 홀로 지내왔다고 생각했는데, 처음부터 그 집에는 다른 사람이 함께 살고 있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존재가 작가가 종이 위에 써 내려간 글 속에서 만들어진 괴물과 관련되어 있다면? 현실과 인식이 한 점에서 만나는 순간, 작가는 섬뜩한 의문과 마주한다.

작가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을 겪은 뒤, 급기야 눈 앞에 나타난 메리 셸리와 대화를 나눈다. 『프랑켄슈타인』 초판이 발표됐을 때 나이인 스무 살 남짓으로 보이는 이 역사적인 작가는 자신의 작품 속 주인공 ‘빅터’와 그가 만든 ‘괴물’을 MS가 자신의 작품에서 창조한 괴물에 빗대어가며 뜻밖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빅터는 괴물을 처음 창조했을 때만 해도 될 듯이 기뻐했지만, 이후 괴물에게 휘둘리게 된 것처럼, 괴물의 이야기를 쓴 작가 역시 그런 운명에 놓인다는 것이다. 작가가 생김새부터 성격, 행동 하나하나까지 다 부여했기에 통제권을 쥐고 있다고 확신하는 자신의 소설 속 괴물은, 독자들이 그 괴물의 이야기를 읽어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부터 작가의 통제권은 완전히 사라진다고 말한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작가는 ‘그 괴물 이야기를 쓴 사람’으로만 인식되고, 결국 자신이 만든 창작물이 자신의 존재 자체를 규정해버리는 묘한 결과를 맞이한다. 메리는 작가에게 그것이 작가가 마음대로 규정해버린 괴물이, 자신이 받은 그대로 되돌려주는 것이라고 담담히 이야기한다. 빅터는 메리가 쓴 이야기의 등장인물일 뿐이었지만, 작가인 자신은 빅터가 창조한 결과의 일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에 MS는 깊이 공감한다. 그렇다면, 메리의 소설을 토대로 새로운 괴물을 만들어낸 그의 삶은 어떻게 될까? 메리는 생애 최대 걸작이라 불리는 자신의 소설이 못 사람들의 생각처럼 신처럼 생명을 창조하려던 인간의 오만함을 비난하거나 과학의 위험성을 경고하려고 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인간은 자신이 만든 것에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는 본질은 자극적인 내용이 주를 이룬 추측으로 모두 흐려지고, 명성과 함께 전혀 의도하지 않은 오해를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한다. 그럼에도 작가가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설명과 함께, 메리는 그에게 뜻밖의 제안을 한다.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써 달라는 것! 원래 전하려던 메시지가 오해 없이 전달될 수 있는 글을 써 달라는 그녀의 부탁은 또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독창적이고 재미있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마커스 세드윅(Marcus Sedgwick)은 카네기 메달 결선 후보에 여섯 번 선정되고 코스타 상, 가디언 도서상, 블루 피터 도서상 등 주요 도서상에도 수 차례 후보로 오른 베스트셀러 작가다. 2014년 『Midwinterblood』로 프린츠 상(Printz Award)을 수상하고 2011년 『Revolver』로, 2016년 『The Ghosts of Heaven』로 프린츠 명예상(Printz Honors)을 두 번 수상했다. 현재까지 서른 편이 넘는 책을 썼다.

추가 업데이트

제목 : THE SEVEN OR EIGHT DEATHS OF STELLA FORTUNA

가제 : 스텔라 포르투나의 여덟 번 인생

저자 : Juliet Grames

출판사: Ecco(US) Hodder(UK)

발행일: 2019년 5월 7일

장르 : 영미소설일반

Sold to: Hodder (UK & BC), Droemer (Germany), Luitingh-Sijthoff (Netherlands), Eksmo (Russia), HarperCollins (Italy), Otwarte (Poland), Alianza de Novelas (World Spanish), Alma Littera (Lithuania)



스텔라 이모는 다른 모든 가족들로부터 외면 받는 존재다. 지금은 100세이지만, 일흔에 당한 사고 때문에 과묵하고 걸핏하면 성질을 부리는 데다 고집을 피우는 성마른 노인이 되고 말았다. 그 사건은 일명 ‘가지 사건’이었다. 가족들이 ‘그 사고’라 부르는 일을 당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의사들의 말에도 가까스로 살아 났지만, 변해버린 성격 때문에 자매인 티나 이모와도 인연을 끊어버리게 되었다. 수십년을 가족들로부터 은근히 비난 받는 사람이 바로 스텔라 이모였다.

“너네 이모가 ‘가지 공격 사건’ 때문에 죽을 뻔한 건 알고 있지?” 티나 이모의 입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이 말 한 마디에, 조카는 스텔라 이모의 과거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 파헤치기 시작한다. 사건 이전 스텔라 이모의 삶, 변해버리기 이전의 시간들을 알게 된 조카는 어디서도 들어본 적 없고 스스로도 믿기 힘든 100년의 자취를 기록하기로 결심한다.

일곱 번, 혹은 여덟 번 죽을 뻔했지만 살아 남은 사람, 마지막 사고 이후 한 몸처럼 지내던 여동생과 두 번 다시 말을 섞지 않은 노인, 엄마에게 ‘저주 받은 아이’로 낙인 찍혀버린 스텔라 포르투나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썼다는 설명으로 시작되는 이 소설은 그 여덟 번의 사고를 각 장마다 순서대로 살펴본다. 스텔라가 기적처럼 이겨낸 치명적인 사고 이야기 속에는 전쟁과 이민, 폭력으로 얼룩진 한 사람과 가족들의 관계가 생생하게 담겨 있다.

지금은 미국 코네티컷 주의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서로 40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두 집에 각각 살

고 있지만, 스텔라와 티나의 고향은 머나먼 이탈리아에서도 칼라브리아 주의 산 속 마을 레볼리였다. 두 번의 세계대전을 모두 겪는 동안 가난은 자매의 집안 형편을 점점 더 값아 먹었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 만큼 가난에 시달리다 결국 아버지는 돈을 벌어 오겠다며 남미로 떠났다. 엄마와 함께 버려진 스텔라와 티나는 다니던 학교까지 억지로 그만두고 올리브 농장에서 일을 해야 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늘 강인하고 생기가 넘치는 동시에 어린 나이에 카리스마가 넘쳤던 스텔라는 양전하고 고분고분하면서 성실한 여동생 티나를 극진히 돌보았고 티나도 언니를 누구보다 의지했다.

하지만 아무리 굳센 스텔라도 당황할 수밖에 없는 불운한 사고가 어릴 때부터 따라다니면서 비극이 시작됐다. 지글지글 끓는 식용유에 심하게 데여 화상을 입은 일부터 시작하여 큰 딸에게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이 벌어지자 엄마의 머릿속에 악마의 저주가 내려진 것이 틀림 없다는 생각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사악한 존재의 눈 밖에 나서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여긴 엄마의 말처럼 살면서 목숨을 건 수술을 두 번이나 받고 뇌출혈로 뇌염을 잘라내는 수술까지 받은데다 질식 두드러 맞아 뇌진탕을 겪고, 성폭행을 당하고, 질식사할 뻔하고 의도치 않게 스스로 목숨을 끊을 뻔한 스텔라의 연이은 사고는 정말 악마의 소행일까?

이모의 삶을 기록한 조카인 이 소설의 화자는, 가족들은 모두 스텔라 이모의 불운에 초점을 맞추지만 보통 그런 사고 한 번이면 진작에 목숨을 잃었을 일을 여덟 번이나 견뎌낸 것은 어마어마한 행운이 아니냐고 반박한다. 그렇다면 마지막 사건,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난 뒤에 스텔라 이모가 티나 이모를 비롯한 가족들을 모두 멀리하고 자신만의 세상 속에 갇혀버린 이유는 무엇일까?

90세가 넘은 티나 이모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텅 빈 집에 혼자 살면서 거의 하루 종일 길 건너 언니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있다. 누구와도 접촉하지 않으려는 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늘 건너다보고, 언니가 오전에 별을 찌러 나왔다가 잠깐 몸을 누이러 방으로 들어가면 재빨리 점심을 만들어서 언니네 뒷문으로 들어가 부엌에 몰래 냄비를 놓고 나온다. 그것도 매일! 스텔라 이모는 일어나서 누가 만들어놓은 줄도 모르는 그 음식을 먹고, 다른 조카가 냄비를 수거해서 티나 이모에게 가져다 주는 일이 이미 일상이 되어버렸다. 두 자매는 태어나 24년을 한 방에서 살았고 결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할 때 비로소 다른 집에 살았다. 둘 다 결혼한 후에도 기어이 같은 동네에 집을 얻어서 매 끼니를 거의 함께 하고 동네방네 오가는 소문을 함께 쑥덕대면서 40년을 붙어 지내던 언니와 동생이 어쩌다 이렇게 서로 아는 척도 할 수 없는 사이가 됐을까? 두 할머니의 조카는 스텔라 할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부터 끔찍 숨어버린 이유가 무엇인지, 가족들이 ‘미친 스텔라’라고 조롱하듯 불러 대는 불쌍한 이모의 삶에 얼마나 많은 비밀과 고통이 묻혀져 있는지 그녀의 생사를 오간 사고들을 토대로 하나씩 보여준다.

가부장적 사회의 폐해와 씻을 수 없는 전쟁의 공포와 상처 그리고 이민자의 고통을, 오직 가족만이 선사하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랑과 헌신의 가치와 함께 그린 따뜻한 이야기다. 작가의 맛깔 나는 표현과 사건 기록처럼 여덟 건의 사고를 나열한 구성은 읽는 내내 흥미를 유발하고 화자인 조카가 실제 역사가이고 스텔라 포르투나가 실존 인물인 것처럼 느껴지는 또 다른 재미가 있다.

<저자 소개>

줄리엣 그레이мс(Juliet Grames)는 Soho Press의 부발행인으로 일하면서 평단의 호평을 받은 범죄 소설들을 편집했다. ‘Words Without Borders’에도 글을 기고해 왔으며 ‘Anderbro’에서 공개된 글 ‘Monologue’는 글래스 여성 상(Glass Woman Prize)을 수상하고 오픈시티 트로피(OpenCity Trophy)에서 2위를 차지했다.

THE SEVEN OR EIGHT DEATHS OF STELLA FORTUNA: A Novel by Juliet Grames
Ecco (US) / Hodder (UK) - 7 May 2019

“This quintessential American immigrant story feels important right now, and I highly recommend it.” — Lisa See, author of Snow Flower and the Secret Fan

For Stella Fortuna, death has always been a part of life. Stella’s childhood is full of strange, life-threatening incidents—moments where ordinary situations like cooking eggplant or feeding the pigs inexplicably take lethal turns. Even Stella’s own mother is convinced that her daughter is cursed or haunted.

In her rugged Italian village, Stella is considered an oddity—beautiful and smart, insolent and cold. Stella uses her peculiar toughness to protect her slower, plainer baby sister Tina from life’s harshest realities. But she also provokes the ire of her father Antonio: a man who demands subservience from women and whose greatest gift to his family is his abs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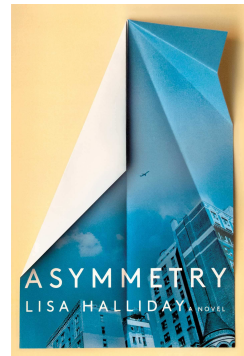
When the Fortunas emigrate to America on the cusp of World War II, Stella and Tina must come of age side-by-side in a hostile new world with strict expectations for each of them. Soon Stella learns that her survival is worthless without the one thing her family will deny her at any cost: her independence.

In present-day Connecticut, one family member tells this heartrending story, determined to understand the persisting rift between the now-elderly Stella and Tina. A richly told debut, *The Seven or Eight Deaths of Stella Fortuna* is a tale of family transgressions as ancient and twisted as the olive branch that could heal them.

Juliet Grames is Associate Publisher at Soho Press, where she also acquires and edits the critically acclaimed Soho Crime imprint. She has written for Words Without Borders and Anderbro, which published her story “Monologue,” winner of the Glass Woman Prize, runner-up for the OpenCity Trophy, and the South Million Writers Notable Story.

추가 업데이트

제목 : ASYMMETRY
가제 : 비대칭
저자 : Lisa Halliday
출판사: Simon & Schuster
발행일: 2018년 2월 6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영미소설일반



★ 2017 WHITING AWARD 수상작!

나이, 권력, 재능, 돈, 부, 사는 곳, 그리고 정의. 이것들은 사람들에게 너무도 다른 비율로 주어져 있는 것이다. 평등하지 않다. 한마디로, '기울어져 있다'. 서로 다른 세 편의 이야기가 차례로 이어져있는 구성인 이 '비대칭'이라는 소설은, 앞서 말한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사람 사이의 가장 극적인 관계를 촉발시키고 유지하는 것이 이 기울어져 있는, 비대칭적인 요소들일지도 모른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그리고 그 비대칭을 섬세하게 탐구한다.

<어리석은 짓(Folly)>이라는 제목의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편집 보조로 일하는 20대 앨리스가 이미 엄청난 문학적 성공을 거둔 노 작가 에즈라를 만나는 이야기이다. 두 번째 소설인 <광기(Madness)>에서는 2008년, 런던 히스로 공항에 붙들린 아마르라는 청년이 등장한다. 그리고 소설의 세 번째 이야기는 마침내 노벨문학상을 탄 에즈라가 무인도 음악에 대해 하는 인터뷰를 그린다. 마침내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이는 두 이야기를 세 번째 이야기에서 의미있게 엮어내는 구성이다. 미국 뉴욕에 살고 앨리스가 겪는 일들이 이라크 전쟁이 시작되고 얼마 안 됐을 때 일어났다는 사실과 입국 심사장에서 오도가도 못하게 된 아마르가 이라크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도 두 이야기의 접점이다.

서로 다른 나이, 권력, 재능, 사는 곳... '비대칭'이 가장 극적인 인간관계를 일으키고 유지한다

앨리스가 남자를 만난 곳은 '미스터 소프트'라는 아이스크림 가게 근처였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시간만 보내는 것이 지겨워질 때쯤, 머리가 하얗게 샌 그가 아이스크림을 들고 옆에 앉았다. 앨리스는 책 하나를 들고 도저히 진도가 나가지 않아 괴로워하면서 언젠가는 자신도 직접 책을 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남자는 앨리스가 읽던 책에 관심을 보였고, 근처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두 사람에게 흥미로운 시선을 던졌다. 앨리스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남자가 옆에 앉을 때부터 이미 얼굴이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그 남자는 아마 그 공원을 지나서 사람 대부분이 알 만큼 유명한 사람이었다. 스물다섯 살,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 보조 일을 하는

앨리스가 일하는 사무실 복도에도 남자의 사진과 사진기사가 붙어 있을 정도였다. 폴리처 상을 몇 번이나 받은 그 유명한 작가는 그 우연한 만남 이후 같은 장소에서 아이스크림을 들고 앨리스와 몇 번 더 마주친 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거대한 건물에 자리한 남자의 집은 쉽게 들어갈 수 없었다. 남자는 뭐가 들었는지 모를 물잔부터 건네며 마시라고 했고, 다짜고짜 앨리스의 가방 검사부터 했다. 유난히 큰 침대와 뉴욕의 하늘 풍경이 멀리까지 내다보이는 그 은밀한 남자의 거처에서, 두 사람의 애매모호한 관계가 그렇게 시작됐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앨리스를 ‘인어’라 부르기 시작한 남자는 고급 버건디 색 가죽 지갑에 이어 시계, 향수 등 갈 때마다 선물을 안겨주었고, 건강 문제로 자신은 먹지도 못하는 와인과 쿠키를 매번 앨리스를 위해 준비했다. 이들의 관계는 무엇일까? 그리고 서로에게 바라는 건 무엇일까?

두 번째 이야기, <광기>는 아마르가 로스앤젤리스에서 탄 비행기에서 내려 히스로 공항에서 끝없는 질문에 시달리는 것으로 시작된다. 입국 심사원은 아마르가 영국에 단 이틀만 머물 것이고, 해외특파원으로 와 있는 알래스테어 블런트라는 사람의 집에서 묵을 것이라는 사실을 듣고도 그 다음 일정까지 묻기 시작했다. 아마르는 이스탄불로 가서, 디야르바키르 주를 거쳐 이라크의 쿠르드 자치구에 들어갈 거라고 순순히 대답했다. 거기에 형이 있기 때문이다. 심사원은 이라크를 방문한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이냐고 캐물었고, 아마르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이제 졸업 논문을 다 썼으니 미국에서 일자리를 알아볼 거라고 대답했다. 전공까지 이야기했지만, 그는 아마르를 보내주지 않았다. 영국에 와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 10년 전 취업비자로 와서 인턴으로 일한 적이 있다고 하자, 왜 여권에 도장이 없느냐고 되물었다. 여권이 망가지는 바람에 새로 바뀌어서 그렇다고 했지만, 그걸로는 부족했던 모양이다. 급기야 이틀간 영국에 머문 뒤 이스탄불로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보여달라는 요청에 전자티켓이라 아직 인쇄를 하지 않았다고 하자, 아마르는 완전히 수상한 인물로 찍히고 말았다. 2008년의 마지막 주말을 공항 대기실에서 보내야 할 처지가 되고 만 것이다.

앨리스와 아마르, 서로 다른 곳에서 전혀 다른 상황을 맞이한 두 사람의 이야기는 돈과 권력, 명예, 재능, 행운, 부당한 일들과 역사라는 큰 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균형이 맞지 않고 비대칭인지 여실히 보여준다. 그리고 어느 순간 연장선상에 놓인 것처럼 두 소설의 공통점이 느껴진다.

<저자 소개>

리사 할리데이(Lisa Halliday)는 1998년부터 2006년까지 런던의 출판 에이전시 ‘와일리 에이전시(The Wylie Agency)’에서 근무했다. 2005년에 발표한 첫 소설 『Stump Louie』은 「Paris Review」에도 소개됐다. 현재는 밀라노에 살면서 프리랜서 에디터 겸 번역가로 일하고 있다.

★★★★★ **unable to put this one down**

By Rachel E. Pollock on June 15, 2018

Format: Kindle Edition | [Verified Purchase](#)

I read this book almost nonstop, pausing only to sleep and take care of work obligations. Otherwise, I read it while eating meals, while waiting for the next conference seminar to begin, every spare moment. It's possible that a sliver of that could be attributed to a bewildered reel at the death of Philip Roth (who was oblique inspiration for a character in here). But I think the majority of it was the twisty, complex, convoluted Rube Goldberg machine of its structure and interwoven themes.

3 people found this helpful

Helpful | [Comment](#) | [Report abuse](#)

★★★★★ **Never Read Anything Quite Like This -- An Incredible First Novel**

By Visions on February 20, 2018

Format: Hardcover | [Verified Purchase](#)

I could hardly put this book down. I don't think I've ever read anything quite like it -- two rather disparate sections (with a coda at the end) that somehow, startlingly, fit together. Lovers of plot-driven books won't like *Asymmetry*. But if you want to understand power and freedom and potential and youth and death, this is a wonderful, truly wonderful, book.

24 people found this helpful

Helpful | [2 comments](#) | [Report abuse](#)

★★★★★ **Once is not enough**

By mburris on February 20, 2018

Format: Kindle Edition | [Verified Purchase](#)

Dialogue as interesting as it is entertaining, and it moves the story — or stories — along to their not-really-an ending. It doesn't matter that this is a first novel. It's exceptional in virtually every way. Ezra is fatuous; Amar is confused; Alice is just bouncing along.

I hope to begin at the beginning — once again — tomorr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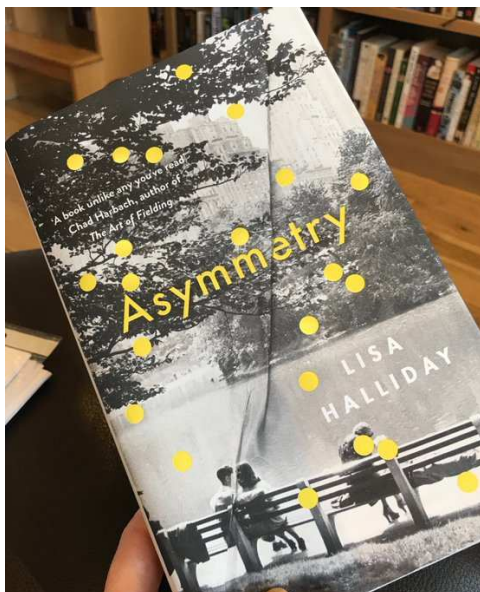
7 people found this helpful

Helpful | [Comment](#) | [Report abuse](#)

Nicola Sturgeon, First Minister of Scotland, tweeted how much she's loving Lisa Halliday's *ASYMMETRY* to her 901,000 Twitter followers! See her shout out below to the Booker Prize committee ;-)

@NicolaSturgeon

Not finished this yet, but it is already my favourite book of the year. If I was a [@ManBookerPrize](#) judge (not looking at you [@valmcdermid](#)) this would be right up there. [#saturdaynightreads](#)



NON-FICTION

제목 : THE WISE ADVOCATE

가제 : 현명한 리더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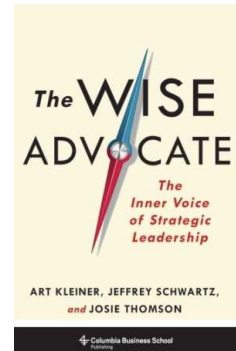
저자 : Art Kleiner, Jeffrey Schwartz, Josie Thomson

출판사: Columbia University Press

발행일: 2019년 1월 29일

분량 : 224 페이지

장르 : 경영



*** 오늘날 대학이 중심이 되는 리더십과 경영 연구는 윤리와 조직적인 상황, 비즈니스에서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저자의 접근방식은 이 같은 응용적 측면까지 세심하게 고려한다” - 덴버 대학교 비즈니스 윤리학 교수, 제임스 오톨(James O'Toole)**

점심에 무엇을 먹을까, 이 옷을 살까 저 옷을 살까 같은 개인적인 고민은 나중에 잘못 선택했음을 깨닫더라도 실망감 외에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수백, 수천 명의 구성원을 이끄는 리더의 잘못된 선택은 수많은 사람들과 자신, 애써 일궈온 사업이나 조직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리더십이란 현명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만큼, 능력 있는 리더와 그렇지 않은 리더의 차이는 언제, 어느 때라도 적절한 선택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나뉜다. 뛰어난 리더는 가장 불투명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핵심을 놓치지 않고, 필요할 경우 오랫동안 고착된 행동 패턴을 과감히 깨고 조직을 새로운 길로 옮겨 놓을 수 있다. 전략 전문가, 정신의학자, 경영 코치로 구성된 세 명의 저자는 이 책에서 바로 이와 같은 우수한 리더의 능력이 최근 속속들이 발표된 뇌 과학 연구에서 그대로 밝혀졌다는 흥미로운 결과를 소개하고, 리더가 반드시 갖춰야 할 자질을 뇌의 정신적 활동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키워 나가는 방법을 설명한다. 신경과학 분야에서 발표된 최신 연구결과를 토대로 비즈니스 리더가 좀 더 나은 경영 방식을 택하는 법을 안내하는 독특하고 혁신적인 경영서다.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은 수시로 큰 갈등 상황에 봉착한다. 어떻게 해야 현재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지 혁신의 방향은 알고 있지만 그러려면 무리해서 큰 자금을 빌려야 할 때, 경영진단 결과 대규모 정리해고가 꼭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누구를 남기고 누구를 떠나 보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할 때, 굉장히 매력적인 사업 제안을 받았지만 그러려면 지금까지 유지해온 운영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그 새로운 길에 호응하리라는 보장이 없을 때, 심지어 뇌물이나 성과 부풀리기, 친인척 혹은 지인을 우선 채용해 달라는 압력 등 윤리적인 선을 넘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현명하다’고 할 수 있을까? 무엇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이 책은 우리가 살면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마다 마음과 뇌에서 특징적인 패턴이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한다. 마음은 개개인의 자아와 끊임없이 이어지는 정신적 활동이 합쳐진 결과물이며, 의식적인 선택과 결정 역시 마음을 규정하는 큰 축으로 작용한다. 즉 마음은 어디에 어떻게 주의를 집중해야 하는지 선택할 때 근본적인 토대가 되고, 이와 같은 선택과 결정은 뇌 기능에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인지하고 그 반응을 제어할 수 있다면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더 쉽게 집중할 수 있다. 이 같은 개념을 토대로 이 책에서는 경영자나 관리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고착된 정신적 활동 패턴을 보여주고, 조직 관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뇌 회로와 그 기능을 설명한다. 이를 통해 ‘전략적 리더’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충동적으로 결정하는 대신 보다 넓은 견지에서 조직 전체의 목표 달성을 염두에 두고 선택하는 능력이 발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 같은 결정 방식은 리더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습관처럼 뿌리를 내리고 있으므로 조직 구성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산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한다. 의사결정 전략과 그에 따른 결과를 신경과학적 관점에서 새롭게 평가한 내용과 함께 리더가 좀 더 효율적으로 뇌와 마음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4단계 프로그램을 소개한 실용적인 경영서다.

<목차>

- 1장. 순간의 선택
- 2장. 불리한 위치, 유리한 고지
- 3장. 내면의 목소리를 찾아라
- 4장. 전하려는 메시지를 재분류하라
- 5장. 상황을 다시 구성하라
- 6장. 집중할 곳을 다시 찾아라
- 7장. 자신의 리더십을 재평가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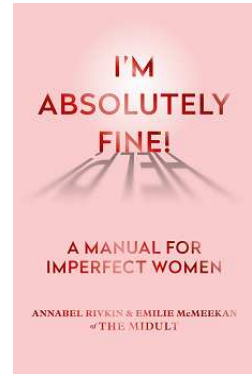
<저자 소개>

아트 클라이너(Art Kleiner)는 경영 잡지 strategy+business의 편집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Who Really Matters』, 『The Age of Heretics』 등이 있다.

제프리 슈워츠(Jeffrey Schwartz)는 UCLA 의과대학 정신의학자로 신경가소성 분야의 전문가로 꼽힌다. 저서로는 『Brain Lock』, 『You Are Not Your Brain』 등이 있다.

조시 톰슨(Josie Thomson)은 수상 경력이 있는 경영 코치, 강연자, 저술가로 『Enliven-U: A Little Book of Inspirations』 등을 썼다.

제목 : I'M ABSOLUTELY FINE
가제 : 전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부제 : 불완전한 여성들을 위한 매뉴얼)
저자 : Annabel Rivkin, Emilie McMeekan
출판사: Cassell
발행일: 2018년 9월 6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 ★ “천재적인 책. 재미 있고, 재치 있고, 쿨하고, 무엇보다 유익하다. 주변 친구들 모두에게 이 책을 돌리는 중이다.” – 저널리스트 인디아 나이트(India Knight)
- ★ “평생을 기다려온 책. 훌륭하다.” – 방송인, 평론가 클라우디아 윈클먼(Claudia Winkleman)

감정이 얼굴과 행동에 그대로 드러나면 ‘철이 덜 들었다’고 여기는 인식은 자고로 다 큰 어른이라면 감정을 적당히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보편적인 기준을 만들어냈다. 짜증난다고 방문을 꺾 달아버리거나 싫은 소리 들었다고 눈물을 펄펄 쏟아내고 이별했다고 일상생활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건 스스로 미성숙한 인간임을 증명하는 꼴이라는 시선 탓에, 도저히 그런 행동이 용납되지 않는 나이가 되면 모두 일제히 ‘덜컾은 척’ 하기 시작한다. 딱히 젊은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나이가 많지도 않은 30대 중반부터 50대 사이에 특히 발달하는 ‘난 아무렇지도 않다’ 세뇌 전략은 생각보다 엄청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사실 이 나이 대에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 거식증이나 폭식증 같은 섭식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공황장애, 싱글맘, 경제적인 문제, 불면증, 신경쇠약 같은 무거운 문제에 시달리지만 세상은 공식적인 진단이나 불가피한 상황 같은 것까지 일일이 고려해주지 않는다. 그 어떤 연령대보다 깊은 오해에 시달리는 사람들, 여러 언론들처럼 ‘정신 없이 바쁜 직장맘’ 같은 한정된 카테고리 분류하기에는 그 테두리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여성들에게 두 저자는 세상이 제멋대로 규정하고 금을 그어놓은 기준을 무시하고 제발 그만 덜컾은 척 하면서 살자고 호소한다.

두 저자는 아이가 있든 없든, 결혼을 했건 하지 않았건 상관 없이 역사상 가장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정서 지능이 우수하고, 디지털 기술에도 익숙한 35세부터 55세 여성들에게 중년(Middle Age)과 성인(Adult)을 결합한 ‘미덜트(Midult)’라는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고 브랜드화시켜 칼럼을 기고하면서 많은 독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진솔한 이야기와 충고를 이 책에 담았다. 세상이 생각하는 ‘그 나이에 어울리는 행동양식’ 같은 건 모두 무시하고, 불안하면 불안하다고, 좋으면 좋다고 다 꺼내놓고 이야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분위기를 깨고 미덜트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고민을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난자를 동결해서 보관해두어야

하는지 고민하는 사람들, 직업상 맞닥뜨리는 위기들, 너무 멀리 온 것 같지만 지금이라도 삶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은 절박한 욕구, 도무지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는 돈 문제, 이혼 같은 묵직한 주제부터 턱에 자꾸 솟아나는 시커먼 털, 다리 털을 면도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 등 일상적이고 사적인 일들까지 두루 이야기하면서 미덜트 여성들에게 이 지구상에 혼자만 이런 고민을 안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건 아님을 상기시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은 아픔과 힘든 상황에도 버티려고 애쓰고 있는지 이야기하며 가까운 친구처럼 다독여준다. 20대 시절보다 더 공통점이 없고 제각기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공통분모가 훨씬 더 많은 미덜트 여성들의 이야기를 가장 내밀한 부분까지 솔직하게 다루면서 보편적인 지혜가 아닌, 진짜 삶의 지혜와 진짜 삶이란 무엇인지 흥미롭게 풀어낸 책이다.

<목차>

머리말. 미치지 말고 미덜트가 되자

1장. 거친 생각의 근원

2장. 어디가 어떻게 잘못될 수 있을까?

3장. 이 구속복을 입으니까 똥똥해 보여?

4장. 파산하지 않는다면(하지만 아마도 그렇게 될 듯)

5장. 그나저나 뭐가 일반적인데?

6장. 누구도 미덜트를 코너로 몰지 않는다

7장. 내가 아니라 너야

8장. 실례합니다만, 여기가 지옥 몇 단계죠?

9장. 변명하자면, 아무도 날 돌봐주지 않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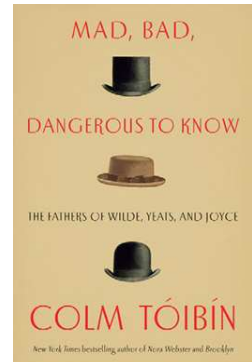
10장. 난 활동적이야, 난 천하무적이야, 그리고 난 녹초가 됐어

(이하 생략, 총 14장과 맺음말로 구성)

<저자 소개>

애나벨 리브킨(Annabel Rivkin)과 에밀리 맥미칸(Emilie McMeekan)은 모두 저널리스트로 2016년에 'The Midult'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다. 웹 사이트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성인 여성을 규정하는 모든 것을 새롭게 평가하는 견해를 칼럼으로 제시해 왔다. 애나벨은 「타임」지, 「보그」 등에 글을 기고해 왔으며 에밀리는 「이브닝 스탠다드」와 「태틀러」에서 편집을 맡고 있다.

제목 : MAD, BAD, DANGEROUS TO KNOW
가제 : 와일드, 예이츠, 조이스의 아버지들
저자 : Colm Toibin
출판사: Scribner
발행일: 2018년 10월 23일
분량 : 272 페이지
장르 : 에세이/전기



- * 부커상 후보에 세 차례 오르고 전 세계 16개국에 판매된 HOUSE OF NAMES (2017)을 쓴 작가의 신작 - 영어권 대표적인 작가 3인의 아버지가 세 아들에게 남긴 영향
- * “토이빈은 유연하고 세밀한 사상가다. 숨은 힌트와 감춰진 뜻을 알아채고 절대적 진실도 경계할 줄 안다.” - 「뉴스테이츠먼」

역사적인 인물은 재능도, 일군 성과도 너무나 남달라서 평범한 사람들이 흔히 시달리는 고민들과는 거리가 멀 것처럼 느껴지지만, 생애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외로 별반 다르지 않는 사실이 드러나 놀랄 때가 많다. 또는 별로 자랑스럽지 않은 일들을 겪었어도 엄청난 성과에 가려져 잘 알려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아일랜드 출신 소설가이자 평론가인 저자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활동한 영어권 최고의 작가 세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이 책에서 보여준다. 오스카 와일드,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 제임스 조이스는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작가라는 공통점 외에도 부친과 꽤 심각한 갈등을 겪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저자는 세 작가의 삶과 작품을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달라도 참 많이 달랐고 화가 치밀게 할 만큼 공통점도 많았던 부친과의 복잡미묘한 관계가 얼마나 큰 흔적과 영향을 남겼는지 보여준다.

아일랜드에서 태어나 모국의 문화와 역사, 문학을 깊이 있게 연구한 학자로도 잘 알려진 저자는 시골을 떠나 대학에 입학한 후 더블린 거리를 거닐면서 영어 문학계의 거장으로 꼽히는 세 작가도 같은 곳에서 같은 시기를 거쳤음을 상기한다. 그 시절, 오스카 와일드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대해 누구나 공감할 만한 글을 남겼다. “서로를 미워하는 두 사람 사이에는 일종의 유대감, 혹은 형제애 같은 것이 존재한다. 이들이 서로를 혐오하는 이유는 너무 달라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닮았기 때문이다.” 예이츠는 화가였던 자신의 아버지에게 관한 이런 평가를 내놓았다. “아버지가 그림을 완성하지 못하는 원인은 의지박약이다. 내 생각에, 아버지가 예술에서나 삶에서 성공하기 위해 꼭 갖춰야 할 자질은 자부심인 것 같다.” 한편, 제임스 조이스의 부친인 존 스태니슬라우스 조이스는 전형적인 아일랜드인이었고 가수로 활동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아들을 아일랜드에서 내쫓은 장본인으로 알려져 있다. 대체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저자는 의사이자 명석한 통계학자였고 아마추어 고고학자로도 활동했던 오스카 와일드의 부친과 가난한 화가로, 뛰어난 편지 대필가로 살았지만 끝내 그림 한 점 완성하지 못한 예이츠의 아버지, 그리고

술 좋아하고 성질이 불처럼 들끓었던 가수로 혼자 신나는 삶을 사느라 대가족을 건사하지 못했던 제임스 조이스의 아버지와 세 부자가 서로의 인생에 각각 어떻게 개입하고 그 흔적을 남겼는지 자세히 추적한다. 이들의 복잡한 관계에만 집중하지 않고, 세 명의 저명한 작가가 쓴 작품에 그 영향이 얼마나 선명하게 남아 있는지 분석하는 동시에 영국의 문화적 지배주의에 대한 거부감에서 탄생한 독자적인 아일랜드 문화의 탄생 과정을 함께 조명한 이야기들도 함께 접할 수 있다.

오스카 와일드의 부친은 의사로서 환자를 치료하는 일에만 전념하는 대신 여행과 의학, 민속 문화, 고고학 등 다양한 주제를 엄청난 양의 글로 써서 발표하길 즐기던 저술가이기도 했다. 여왕에게 기사 작위를 받을 만큼 큰 명예를 얻은 그와 달리 오스카 와일드나 어머니는 정해진 규칙을 잘 따르는 타입이 아니었다. 예이츠의 아버지, 존 버틀러 예이츠는 말년에 자신의 자화상을 그리는 일에 긴 시간을 투자하고도 결국 완성하지 못한, 많이 부족한 화가였고 평생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란 아들은 ‘일단 시작한 일은 반드시 끝을 낸다’는 목표를 무조건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늘 술에 취해 있고 경제적인 능력도 없는데다 폭력적이기까지 했던 아버지를 자신의 삶에서 지워버린 제임스 조이스는 가족과 함께하는 삶 대신 친구들을 택한 부친을 내내 원망하다가 나중에 자신의 작품을 통해 다시 그런 아버지의 이야기를 꺼낸다. 저자는 우아하고 심오하면서도 흡입력 있는 글로 결코 평범하지 않았던 세 부자의 굴곡 많은 관계를 보여주고, 세 명의 거장 작가가 쓴 작품들을 새로운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목차>

머리말

빅토리아 시대 유명인사: 윌리엄 와일드 경

존 버틀러 예이츠: 웨스트 29번가의 플레이보이

두 명의 테너: 제임스 조이스와 그의 아버지

<저자 소개>

콜름 토이빈(Colm Tóibín)은 소설 『Blackwater Lightship』, 『The Master』, 『The Testament of Mary』로 세 차례 부커 상 후보에 올랐다. 『The Master』는 IMPAC 상과 LA 타임스 도서상을 수상했으며 『Brooklyn』은 코스타 소설 상을 수상하고 영화로 제작됐다. 현재 콜롬비아 대학교 인류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제목: THE EIGHT ESSENTIAL PEOPLE SKILLS
FOR PROJECT MANAGEMENT

가제: 사람 관리에 꼭 필요한 여덟 가지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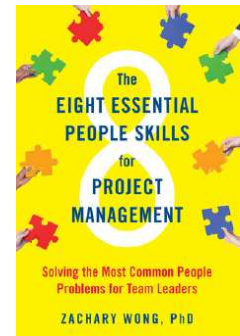
저자: Zachary Wong

출판사: Berrett-Koehler Publishers

발행일: 2018년 11월 27일

분량: 216 페이지

장르: 리더십



★ 프로젝트를 총괄하거나 팀을 이끄는 리더라면 누구나 겪는 대표적인 ‘사람 문제’를 해부하고
각각에 관한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한 책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사람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 리더는 팀의 규모나 속한 분야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큰 벽에 부딪힌다. 팀 구성원 한 명 한 명과 직접 소통하고, 업무 방향을 제시하고, 생산성을 높여서 최종적으로 정해진 결과를 얻어내야만 한다는 것이다. 실제 상황에서는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빼먹대지 않고 해내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다. 위에서 요구하는 일들은 나날이 늘어가거나 더욱 엄격해지는데 구성원들은 개개인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해야 할 일에 꼭 필요한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내기로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구성원들이 제각기 보유한 기술이나 탁월한 재능을 팀이 추구하는 방향에 알맞게 유도하는 것, 그리고 개인적인 목표가 전부 다른 사람들에게서 ‘팀 행동’을 끌어내야 하는 것이 리더가 반드시 해야 할 몫이다. 30년 이상 조직을 경영한 경력이 있고 이후 인적 자원과 리더십을 지도하는 교수이자 컨설턴트로 활동해온 저자는 수십 년간 산업계와 정부기관, 학계에서 수백 명의 팀 리더들과 만나 함께 일하면서 직접 조사하고, 연구하고, 경험한 사실들을 토대로 가장 일반적인 동시에 필수적인 인적 자원 관리 기술 여덟 가지를 이 책에서 알려준다.

자신이 이끄는 팀에 현재 존재하는 소위 ‘사람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해결하는 첫 단계부터 안 좋은 행동을 올바르게 지적하고 해결하는 법, 팀 전체의 불만족과 부조화를 줄이는 법, 한 팀으로 함께 일하기 힘든 사람들과 개인적인 성과가 영 뒤쳐지는 구성원을 정상 궤도로 올리는 법, 팀 리더로서 정당하게 요구하는 일을 구성원이 해내도록 하는 법, 업무에 보다 열의를 갖고 임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법, 꼭 필요한 변화와 위기 상황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법, 까다로운 상관과 잘 지내는 법 등 지극히 현실적이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여덟 가지 기술이 구체적인 전략과 함께 사례연구, 팁과 함께 제시된다.

가장 뛰어난 팀 리더는 문제를 처음부터 틀어 막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생겨도 해결할 수 있고 다툼이나 갈등을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자는 설명한다. 이에 이 책은 문제를 처음부터 만들지 않는 방법보다는 팀 단위로 일을 할 때 반드시 생길 수 밖에 없는 문제를 보다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모형과 툴을 제시하고 여덟 가지 핵심 기술마다 일러스트레이션과 그래픽, 표 등 시각적인 자료를 풍성하게 제시하여 활용법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생각도, 배경도 모두 다른 여러 사람을 이끄는 일만큼 어려운 일은 없다는 전제 아래, 저자는 심리학과 조직 행동, 인적 요인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밝혀진 정보와 지식을 모두 고려하여 단단하고 강력하면서도 유연하게 팀을 이끌 수 있는 요령을 가르쳐준다.

<목차>

머리말

기술 하나. 사람 문제를 진단하고 수정하는 법: 빼기

기술 둘. 사람이 아닌 사람 문제에 강하게 대처하는 법: 모자 세 개

기술 셋. 성공적인 팀 꾸리는 법: 순환고리

기술 넷. 사람들의 태도와 행복도, 성과를 끌어 올리는 법: 아이스크림 콘

기술 다섯. 까다로운 사람들, 성과가 미진한 사람들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법: 공 앞으로 굴리기

기술 여섯. 올바른 팀 행동 촉진하는 법: ABC 상자

기술 일곱. 변화, 문제점, 새로운 해결과제가 주어져도 성공하는 법: 검은 상자 효과

기술 여덟. 상관의 도움과 영향력을 얻는 법: 가시성의 효과

<저자 소개>

재커리 웡(Zachary Wong)은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인적 요소와 리더십, 팀 관리, 국제 마케팅, 산업 경영을 가르치는 교수로 재직 중이다. 리더십 트레이닝, 컨설팅 업무도 꾸준히 이어 왔다. 저서로는 『Human Factors in Project Management』, 『Personal Effectiveness in Project Management』가 있다.

제목 : HATE

가제 : 혐오 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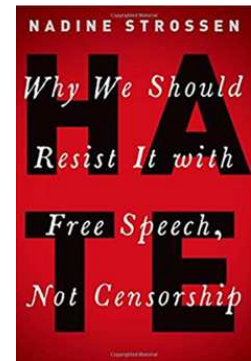
저자 : Nadine Strossen

출판사: Oxford University Press

발행일: 2018년 5월 1일

분량 : 232 페이지

장르 : 사회/법률



- * “저자는 이 책에서 평등과 자유를 동시에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에 관한 대담하고 중요한 사실을 피력한다. 앞으로 수년간 이어질 혐오 발언 관련 모든 논쟁에 기초가 될 만한 내용” – 시카고 법대 교수, 제프리 스톤(Geoffrey Stone)
- * “저자는 혐오 발언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를 이해하지만, 쉬운 해결책처럼 보이는 검열이 정치적으로도 방어막이 될 수 없고 현재의 전자 혁명 시대에는 사회적으로도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 런던 퀸 메리 대학교, 에릭 하인즈(Eric Heinze)

특정 인종이나 피부색, 성적 지향성이 다른 사람들을 노골적으로 겨냥해서 욕설과 비하하는 말들을 쏟아내는 개인, 단체와 이들을 저지하려는 사람들의 갈등이 심심찮게 언론에 보도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특정 정치 집단이나 대상을 표적으로 삼아 ‘없애버려야 한다’ ‘처단해야 한다’는 식의 거친 발언을 쏟아내고 그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는 모습이 수많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지만, 경찰은 집회가 과열되지 않도록 저지할 뿐 그러한 발언 자체를 막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소위 ‘혐오 발언’이 훨씬 더 빈번하고 강도 높게 이루어지는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이러한 발언을 막아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발언의 자유는 지켜져야 하지만 혐오 발언은 그러한 자유를 부여해야 할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오히려 그러한 조치가 시민 전체의 자유를 앗아가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반대 주장과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여성 최초로 미국시민자유연맹 대표에 올라 15년 이상 법으로 보장되는 자유에 관한 사회적 이슈에 중요한 의견을 제시해 왔던 저자는 이 책에서 현재 큰 관심을 얻고 있는 혐오 발언의 법적 규제와 관련하여 대다수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날카롭게 지적한다. 헌법 전문가로서 미국의 수정헌법 제 1조가 발언의 자유와 민주주의, 평등, 사회적인 조화를 어떻게 유지하고 강화하는지 상세히 설명하고, 혐오 발언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처럼 법적인 검열 대상에서 아예 배제되어 있지 않으며, 그렇다고 무조건 검열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이야기한다. 특정 개인, 혹은 집단이 던지는 메시지가 불쾌하고, 당혹스럽고, 향후 누군가에게 해를 입힐 수 있다고 ‘추정’된다고 해서 정부가 나서서 아예 입을 틀어 막을 경우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기보다는 최소한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최악의 경우 한정된 공권력과 공공 자원을 더 필요한 곳에 쓰지 못하는

부작용만 초래된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실제로 과거 미국 정부가 지금보다 넓은 범위에서 불쾌한 발언을 저지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했을 때 어떤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평등권이 얼마나 침해됐었는지 보여준 실제 사례와 정부 차원의 검열이 혐오 발언에 내포된 위협적인 행동이나 가해를 정말로 차단할 수 있다고 입증된 결과는 거의 없다는 사실이 함께 제시된다.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혐오 발언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법적으로 구체적인 차단 노력이 이루어지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에서 벌어진 다양한 결과를 통해 저자는 법으로 이 같은 발언을 금지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무관심하거나 손을 놓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임을 조목조목 설명한다. 또한 과거 오바마 대통령도 언급한 것처럼, 혐오 발언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적극적인 시민 운동과 그러한 발언의 내용을 반박하고 근거 없는 비방이나 언어 폭력의 폐해를 더 많이 알리려는 노력이라고 이야기한다.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위험한 발언을 저지해야 하고 그러한 위급 상황과 단순히 불쾌한 감정을 유발하려는 혐오 발언을 엄격히 구분해야 하는 이유와 현재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발언의 자유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이유를 다시 한 번 깨닫게 하는 알찬 내용이 가득하다.

<목차>

머리말

1. 개요
2. “혐오 발언” 법은 자유 발언과 평등의 원칙을 침해한다
3. “혐오 발언”이 보호를 받는 경우와 처벌이 가능한 경우
4. 해결 방안이 없는 애매모호함, 과도하게 넓은 범위
 - “혐오 발언” 법이 자유 발언과 평등을 침해하는 이유
5. 모호하지 않고 범위가 과도하게 넓지도 않은 “혐오 발언” 법을 만들 수 있을까?
6. “혐오 발언”을 헌법으로 보호하면 피해가 발생할까?
7. “혐오 발언” 법은 최소한 무익하고 최악의 경우 역효과를 낳는다
8. 검열 외에 헌법으로 보호되는 “혐오 발언”의 잠재적 피해를 효과적으로 없애는 방법
9. 결론: 뒤를 보자 - 그리고 앞을 내다보자

<저자 소개>

나딘 스트로센(Nadine Strossen)은 뉴욕 법과대학의 헌법 교수다. 1991년부터 2008년까지 미국 시민자유연맹에서 여성 최초로 전국 대표를 맡아 역임했다. 60 Minutes, CBS 선데이 모닝, 굿모닝 아메리카 등 미국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호주,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 해외 언론을 통해 헌법 문제와 시민의 자유권에 관한 쟁점에 의견을 제시해 왔다.

제목 : BREAKING UP WITH BUSY

가제 : 쫓기는 삶에서 벗어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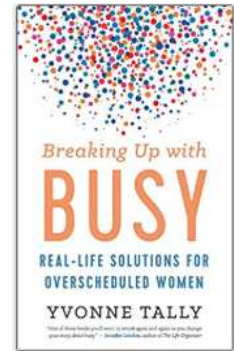
저자 : Yvonne Tally

출판사: New World Library

발행일: 2018년 4월 17일

분량 : 216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 ★ “소비자 리포터로 일하면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무수히 접했다. 저자의 방식은 새로운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을 일깨워주었고, 내가 시도해본 방법 중에 **gyrhkrk** 가장 강력했다” - 에미상 2회 수상 기자, 『Raising Baby Green』 공동저자 자넷 파비니
- ★ “전염병처럼 번진 바쁘게 사는 생활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무엇이 습관처럼 바쁘게 지내도록 만드는지 파헤친 후, 닳이 무엇인지 가려내고 영원히 그러한 생활을 타파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한다”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Those We Love Most』의 저자 리 우드러프

요즘에는 오랜만에 만난 지인에게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었을 때 “바빠” 혹은 “매일 정신이 없네”와 같은 대답이 돌아오면 대부분이 잘 지내는구나, 생각한다. 반대로 특별히 할 일이 없거나 납득할 만한 사유 없이 ‘안 바쁜’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치부되거나 게으른 사람으로 여겨지기 십상이다. 언제부터 바쁜 사람이 더 우월하고 뭔가 ‘있어 보이는’ 존재가 되었을까? 그러나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유능하다고 여겨지던 때를 지나 멀티태스킹을 할 때 집중력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처럼 얼굴 한 번 보기도 힘들 만큼 바쁘게 사는 사람 역시 겉으로는 대단해 보일지언정 속사정은 전혀 대단하지 않다. 20년 가까이 자기계발 강사로 활동해온 저자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사람들을 짝퐁 명품에 비유한다.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고 멋지다는 생각까지 들지만 꼼꼼히 들여다보면 디테일이 엉망이고 조금만 사용하면 어딘가가 벗겨지고 부서지는 등 내구성의 한계가 드러난다는 의미다. 하루에 처리해야 하는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인 생활은 정말로 어쩔 수 없는 문제일까? 의도적으로, 혹은 의도치 않게 스스로 자초한 일은 아닐까? 저자는 바쁜 삶이 일종의 습관이 되어버린 여성들을 주된 타깃으로 삼아, 아무 쓸모 없는 이 습관에서 벗어나 삶을 훨씬 여유롭게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왜 부끄럽거나 숨겨야 하는 것이 아닌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일인지 설명한다. 직장이나 돌보아야 하는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매일 감당 못할 스케줄에 짓눌려 사는 모든 여성들이 고민하고 생각해볼 만한 시간 활용법과 과도한 스케줄로 인한 폐해를 배울 수 있다.

저자는 한 때 아침부터 밤까지 넘쳐 나는 스케줄대로 살다가 공황장애를 겪고 마음챙김 명상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극복한 경험을 토대로 자신과 같이 무엇 때문에 이토록

바쁘게 사는지도 모르는 채로 쫓겨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 시간을 더 소중히 생각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왔다. 이 책에는 그 과정에서 저자가 다양한 사람들에게서 효과를 확인한 시간 관리 요령과 더불어 인생과 한정된 시간에 관한 우리의 마음가짐 자체를 새롭게 변화시킬 이야기들이 종합되어 있다. 분명히 꿈꾸고 소망했지만 잊고 지낸 열망, 삶의 목표를 다시 한 번 떠올리고 아무 득 될 것 없는 일들에 시간을 쪼개서 할당하는 대신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면서 사는 것이 자신은 물론,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짚어준다. 저자가 제시하는 ‘5단계 강력한 해결방법’ 역시 스케줄에 멍하니 쫓겨 다니는 대신 현재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속도를 조절하는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책 마지막 부분에는 매주 실천할 수 있는 기분전환과 그 동안 잊고 지낸 일들을 떠올려볼 수 있는 52가지 아이디어가 나와 있다.

한번에 여러 가지를 해치우려는 욕심을 버리고 균형 잡힌 삶을 되찾을 때 수명과 멋진 외모, 자아 실현이 더 확실하게, 더 빨리 실현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습관과 사고방식을 변화시켜 유쾌하게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법을 상세히 소개한 자기계발서다.

<목차>

1부. 바쁜 삶과의 이별

- 1장. 스케줄이 넘치는 한 여성(OSW)의 고백
- 2장. ‘누가누가 더 바쁠까’, 바쁜 삶에 대한 자긍심
- 3장. 바쁜 삶, 바쁘게 지내는 습관 내쫓기
- 4장. OSW의 뒷에서 벗어나라
- 5장. OSW 타입별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

2부. 해결방법

- 6장. 필수 요건
- 7장. 마음을 고쳐먹자: 놀랍도록 강력한 사고의 힘을 발휘하게 해주는 마음챙김 명상
- 8장. 바쁜 습관을 없애는 방법
- 9장. 바쁘지 않아도 즐겁게 살아가는 요령: 기분전환, 그리고 기억을 일깨워주는 것들

<저자 소개>

이본 톨리(Yvonne Tally)는 실리콘 밸리를 중심으로 미국 전역의 업체, 개인 단체, 개인에 명상과 마음챙김 명상 강좌를 실시하며 20년 가까이 자기계발 코치로 활동했다. 암 생존자를 위한 필라테스 트레이닝 업체 Poised Inc.의 공동 창립자, 암 환자들에게 머리 수건을 제공하는 자선단체 The Sisterhood of the Traveling Scarves의 설립자이기도 하다.